

Landscape

Review

Vol.21 조경정보

Contents

도시정원가꾸기 Urban Gardning

- 02 _ 도시 정원가꾸기로 읽는 도시농업 윤상준
- 03 _ 영국 왕립원예협회의 스쿨가드닝 캠페인 윤상준
- 04 _ 도시의 새로운 레저활동으로 자리잡은 일본의 텃밭 임대 손용훈
우유 박스 정원(milk crates garden), Riverpark Farm 신현돈
- 05 _ 도심 속 자연주의 문화공간 여반가든 한선아
학생들이 가꾸는 작동하는 생태계 '하늘마당' 손용훈
- 06 _ 도시 젊은이들의 옥상정원 사용법 조혜령
여성환경연대 도시공동체 텃밭 전재현
- 07 _ 독일 베를린의 모바일 가든 이형숙

도시정원가꾸기(Urban Gardening)로 읽는 도시농업

글 · 자료 윤상준 (사)한국전통조경학회 총무이사 alpnet0504@hotmail.com



공원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텃밭 쇼케이스, 런던 타워브리지 ©윤상준



작은 주택의 4평 공간에 조성한 야외부엌과 화단 ©RHS



공원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텃밭 쇼케이스, 런던 타워브리지 ©윤상준

언제부터인가 도시농업은 우리의 주변으로 꽤 가까이 다가왔다. 도시농업의 필요성이나 가치는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하면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심지어 아파트 분양 선전의 카피 또한 도시농업, 도시농사꾼이 등장하고 있다. 이제 도시농업은 도시생활의 한 흐름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듯 보인다. 그러나 2011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표되며 도시농업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라고 정의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그 개념이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아 이해되지 못하여 적잖은 혼란을 주고 있다.

이것은 국내 도시농업이 아직 걸음마를 내딛는 시기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우리는 도시농업의 필요성과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개념 정립보다는 그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시켜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는 자칫 직·간접 관련분야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이해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일부에서는 “도시 내 조정공간의 일부를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존의 잘 조성된 시설녹지나 환경적으로 우량한 녹지에서의 도시농업 행위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도시 내 유휴지 활용이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와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산업농업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일부에서는 귀농하는 활동 등도 도시농업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파머마켓(farmer's market) 또한 도시농업 영역으로 끌어들여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심지어 농촌에서의 도시농업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도시농업에서 먹거리 생산이나 산업적인 측면이 강조되다보니 농촌농업 즉 산업농업의 반대 개념으로 대립되는 것처럼 비추어 지기도 한다. 이것은 우리가 그 결과물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도시농업에 있어 먹거리 생산은 부수적인 산물로 이해해야 한다. 즉, 도시농업은 그 개념이 결과보다는 과정이라는 관점에 초점을 두고 확립해야 한다. 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농업과는 구별되는 도시농업은 비영리를 전제로 여가, 교육, 건강, 환경, 공동체 회복 등을 목적으로 농산물을 키우는 도시 내 정원 가꾸기(Urban gardening) 활동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원인 중의 하나는 “도시농업”이라는 명칭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도시농업이라는 단어는 다소 무겁다. 단어에서 오는 어감으로 인하여 농촌농업과 혼동하기 쉽다. 우리가 추구하는 도시농업에 있어 그 행태적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 내 다양한 형태의 텃밭가꾸기로서 정원가꾸기 혹은 정원일 즉, 가드닝(gardening)임을 알 수 있다. 바로 업으로서의 활동이 아니라 시간이 만들어낸 결과보다는 시간을 보내는 과정에 의미가 있는 여가로서의 활동을 의미한다.

세계적으로 도시농업의 흐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개발도상국이 주로 식량 시스템의 보완, 빈곤의 완화, 유기질 폐기물의 재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영양부족과 배고픔 해결을 위한 식량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형태이다. 다른 한 가지는 선진국에서 도시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하여 생산, 여가, 취미, 보전, 생태의 측면에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형태이다. 환경에 대한 자각과 함께 여가생활과 문화

활동이 동시에 고려되어 기존의 정원문화의 테두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발전해 오고 있는 형태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도시농업이 개발도상국형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주거형태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정원문화는 발전되지 못하고 단절되어 왔다. 아마도 이것은 한국정원하면 역사 속의 전통정원을 떠올리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도시에 살고 있는 인구의 비율은 2009년을 기준으로 90%가 넘었다. 1980년만 해도 단독주택이 87%를 차지하였지만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이 200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80%가 넘어섰다. 경제발전과 함께 일어난 주거형태의 변화는 인간과 외부 공간의 관계변화 즉 일상에서 자연과의 단절을 가져왔다. 이로 인하여 사회구조와 도시농업의 요구는 선진국형이지만 개념 적립에 있어 그 바탕을 정원문화에서 시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야기된 혼란이라고 보인다.

그렇다면 도시농업·유기농업의 메카라고 불리며 모범사례로 꼽히는 쿠바는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도시농업의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을까? 쿠바는 소련의 붕괴와 미국의 경제봉쇄 정책으로 인한 생계의 위협 속에서 식량 생산이 주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유기농업을 지향하면서 발전하여 아바나 시의 경우 도시 전체면적의 41%가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시에서 소비되는 농산물의 80%를 담당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쿠바는 우리가 추구하는 도시농업이 아닌 산업농업으로 발전하였다. 도시농업의 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잘 갖추어진 사회적 시스템에 있다. 도시정원에서 새롭게 작물을 재배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유기농 재료를 판매하는 원예정보센터가 아바나에만 해도 60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누구라도 쉽게 도시농업을 시작할 수 있는 네트워크화 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영국 도시농업의 대표적인 형태인 얼로트먼트(allotment)는 오랜 시간동안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발전·쇠퇴·발전을 거듭하며 자리를 잡아온 좋은 사례이다. 1887년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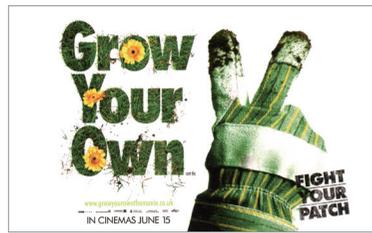
메다는 꽃바구니에 키우는 방울토마토 ©RHS



본인이 키운 농작물로 하는 요리 시연회 ©RHS



행사장의 정원 상담 코너 ©RHS



도시농업 홍보 영화 포스터

로 지방정부가 얼로트먼트를 공급해야 된다고 명시하였으나 실질적인 역할은 미비하였다. 영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역할을 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였다. 20세기 후반에 들어 도시농업의 사회적 필요성과 가치가 증대되었지만, 얼로트먼트는 과거와 같은 식량공급을 위한 형태로 남아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인식되어 기피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발전해온 정원문화 관련 자선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기존의 얼로트먼트가 개선되고, 도시농업이 정원문화의 한 형태로서 여가를 위한 활동으로 인식이 전환되면서 빠르게 안정화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얼로트먼트가 재조명 받으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커졌다. 정원과 원예의 전문가 관으로 전국적 조직이 구축되어 있는 자선단체들의 노하우와 시스템은 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많은 역할을 하였다. 다양한 행사를 통하여 실질적인 도시농업의 방법론을 보여줌으로서 도시정원 속에서 유기농 텃밭가꾸기를 진흥시키고 있으며, 다양한 조언과 정보를 제공해주는 등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듯 영국의 결과는 사회 저변에 쌓인 정원문화와 관련된 사회적·문화적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현재 영국의 얼로트먼트는 영국의 지역적 특성과 함께 기능, 의미, 미가 결합한 중요한 문화경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도시농업은 대의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장소만 마련된다고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도시농업이 하나의 정원문화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국가에 의해서든 민간에 의해서든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 즉 소프트웨어가 구축되어야 한다. 쿠바의 사례와 영국의 얼로트먼트의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관리와 지원 및 교육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도시농업을 위한 터는 한때의 유행처럼 지나가 황폐해지고 버려져 도시의 흉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다.

우리사회는 변화하고 있다. 이제 사람들은 공급자가 제공하는 결과를 즐기는 공간과 함께 일상에서 과정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원한다. 공원으로 대표되는 기존 외부공간의 이용과 같은 객체적 활동뿐만 아니라 기르는 과정에 의미를 두는 인간 중심의 주제적 활동과 생산적 여가활동에 대한 사회적 요구, 다시 말해 정원을 시대가 요구하고 있다.

영국 왕립원예협회의 스쿨가드닝 캠페인

글 · 자료 윤상준 (사)한국전통조경학회 총무이사 alpnet0504@hotmail.com

정원과 원예 분야를 선도해 나가고 있는, 200년 역사의 영국 왕립원예협회(RHS)는 다양한 이벤트를 통하여 정원에 대한 아이들의 관심을 고취시켜 오고 있다. 특히 플라워 쇼를 통하여 학교 정원의 중요성을 사회에 알리고 아이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정원가꾸기를 일상의 한 부분으로 교육시키고 있다. 2007년 햄프턴 코트 플라워 쇼에서 다양한 공간을 조성하여 학교 안에서 그러나 교실 밖에서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를 보여 주는 정원이 최고의 정원을 수상하였다. 이 정원은 2007년 새롭게 개편 조직된 아동, 학교 및 가족부(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가 지원을 하였는데 정원을 디자인한 크리스 비어드쇼는 '교실 밖의 배움에 대한 선언서(Learning Outside the Classroom Manifesto)'에서 가장 큰 영감을 받아 디자인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맞추어 왕립원예협회는 2007년 9월 새로운 캠페인인 "학교 정원가꾸기 캠페인(Campaign for School Gardening)"을 시작한다. 왕립원예협회는 학교 정원가꾸기가 정원술을 다음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며 정원가꾸기 교육은 아이들 성장에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고 인식하였다. 협회는 모든 학교가 정원가꾸기를 교육의 방법으로 활용하도록 장려하며; 정원가꾸기가 어떻게 학교 교육과정의 질을 높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하여 아이들의 생활능력을 발전시키고 그들의 정서적·신체적 건강에 보탬이 되는지를 보여주며;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미래의 건강하고 활동적인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 담당을 시연하는 것을 캠페인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신청학교는 5개 항목(학교 문화 및 기풍 / 현재까지의 학교정원 및 가꾸기에 대한 발전상 / 정원가꾸기를 활용한 가르침과 배움의 방법에 대한 설명 / 학교 정원가꾸기 활동에 얼마나 많은 학부모와 지역 주민이 참여 했는지에 대한 설명 / 이를 증명하기 위한 교육과정, 사진, 도면 등 제출)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 내용에 따라 1단계: 계획단계 / 2단계: 시작단계 / 3단계: 발전 및 다양화 단계 / 4단계: 모범 운영 단계 / 5단계: 지역사회 참여 단계로 등급을 부여하고 필요한 자료 제공과 선생님들에게 정원가꾸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각 지역의 지정된 협회의 전문가가 학교 정원 및 프로그램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고 있다. 현재까지 영국 전역의 16,000개 학교와 교육기관이 등록을 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 정원가꾸기의 주된 프로그램은 단연 텃밭에서의 먹거리 생산이다. 관상용 정원가꾸기가 아닌 생산적 정원가꾸기를 주로 수업 방법으로 활용하는 이유는 과목의 직접적 지식 습득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이해 및 형성 등 사회적 이슈와 생태계에 대한 이해, 환경에 대한 책임 등 환경적 이슈까지 자연스럽게 같이 체험하고 교육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직접 키운 것에 대한 애착으로 인하여 건강한 식생활 습관 형성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왕립원예협회가 강조하는 점은 선생님의 적극적인 참여이다. 협회는 선생님이 직접 수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조언 및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 역할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학교 정원가꾸기를 통한 정원문화의 확산 및 학교정원 관련 프로그램이 지속가능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 일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외부 위탁으로 스쿨 가드닝을 실시하고 있는 것과는 큰 차이이다.



스쿨 가드닝 캠페인 공식 로고 ©RHS



1. 초등학교 정원가꾸기-씨앗 심기 ©RHS

2. 초등학교 정원가꾸기-감자 수확 ©RHS

도시의 새로운 레저활동으로 자리잡은 일본의 텃밭 임대

글 · 자료 **손용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교수 sonyh@snu.ac.kr

최근 일본에서는 도시민의 텃밭 가꾸기 활동을 비즈니스화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눈에 띈다. 오사카에 있는 남바파크 가든 어반팜은 난바역 앞 건물의 옥상에 텃밭 20구좌를 설치하고 연간 이용요금 약 50만원에 임대하고 있다. 다소 비싼 가격 같지만 요금 안에는 이용자가 요구하면 대신해서 물주기, 잡초 뽑아주기 서비스를 해주고, 채소재배 지도 등의 서비스와 샤워시설도 갖추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본 국내 녹화기술사업에 관한 유명한 회사인 도호레오도 최근 임대 텃밭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동경, 오사카 등 대도시 주변의 유휴지를 임대하여 임대 텃밭을 만들고 인터넷으로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다. 홈페이지는 텃밭 임대 자체 보다 텃밭가꾸기를 통해서 얻어지는 다양한 녹지생활 문화활동을 전달하고 있다.(<http://www.machinaka-saien.jp>) 이용요금은 장소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연간 40만원에서 많게는 80만원까지 받는다. 일반적으로 도시민이 헬스클럽 등에 월 10만원 상당을 투자하듯 텃밭활동으로 건강해지고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것에 비슷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는 발상이다. 또한 도호레오는 녹화기술사업의 전문회사임으로 전문가가 재배기법을 지도한다는 점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동경 세타가야에 있는 '아그리세이조'는 텃밭 임대를 도시의 고급 레저활동으로 프로그램화하여 고부가가치 비즈니스화 한 좋은 사례이다. 아그리세이조는 2007년 전철 지중화 사업으로 지면이 만들어진 인공지반에 조성한 임대 텃밭이다. 전철역 바로 앞이라는 입지조건과 고급주택가의 분위기



1. 아그리세이조 텃밭 전경 ©손용훈
2. 아그리세이조 클럽하우스 입구의 화체 판매대 ©손용훈
3. 고베시 산노미야역 다이에 빌딩 옥상에 있는 직장인들을 위한 임대 농원 ©손용훈

있는 가로에 접해 위치하며 총 300구좌가 조성되어 있다. 이곳은 기본요금 월 15만원에 옵션을 첨가하면 그 이상의 가격으로 텃밭을 임대한다.

아그리세이조 입구는 먼저 클럽하우스가 눈에 들어오는데 세련된 취향의 건물이다. 개인로커, 샤워룸, 레스토랑, 고급 정원도구샵 등의 시설과 텃밭가꾸기 레슨, 가드닝 레슨, 꽃꽂이 레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실로 구성되어 있다. 마당의 텃밭은 목재데크 포장양측에 조성되어 있고 서양 채소, 허브 등 세련된 취향의 채소 재배도 많이 눈에 띈다. 텃밭의 상근 직원은 텃밭 이용자를 대신해 물을 주거나 잡초를 제거하는 등 일상적 관리를 도와주고 작물이 잘 자라고 있는지 매일 체크하여 알려준다. 아그리세이조에서 텃밭가꾸기란 일, 노동이 아니라 도시의 고급 취미로서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레저산업이다.

그 외에도 다양한 임대 텃밭이 일본에는 존재한다. 직장인들이 출퇴근길에 이용하도록 도심부 전철역 주변 옥상정원에 조성된 임대 텃밭도 있다. 보다 일반적인 형태로 저렴한 시민농원, 농장주를 대신하여 농업조합이나 부동산업자가 운영하는 도시텃밭 등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유형의 도시텃밭이 있고 또 각각 다른 목적의 이용자들에게 이용되고 있다. 월 임대료 20만원에 이르는 아그리세이조와 같은 임대 텃밭에서 연임대로 10만원 이하의 공영 시민텃밭까지 제공되는 상품이 다양한 만큼 도시 안의 텃밭 공간도 많아지고 도시의 녹지생활 문화활동으로 더 풍요로워진다.

우유 박스 정원(milk crates garden), Riverpark Farm

생활 속 소출 · 안전한 먹거리 · 취미 · 어반커뮤니티 글 · 자료 **신현돈** 서안알앤디디자인(주) 대표이사 samd@chol.com

최근 도시정원(Urban Garden)은 도시의 먹거리 생산이라는 역할을 넘어서 건강과 취미, 교육, 공동체 회복 등 도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역할을 하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뉴욕시내 한복판 15,000 평방피트의 공간, 알렉산드리아(Alexandria Center)에 위치한 리버파크 농장(Riverpark Farm)은 세계적인 경제난으로 재건축 건설공사가 중단된 웨스트 타워에서 시작되었다. 뉴욕의 "정지된 공간(멈춰진 공간)"으로 불리는 700여개의 건물 중 하나인 웨스트 타워에서의 도시농업은 알렉산드리아에서 가장 큰 도시농업의 모델 중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버려진 공간을 임시 대체 사용하여 지역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리버파크 농장의 식재플랜터들은 정육면체 형태의 우유 박스를 재활용하여 만들어졌다. 우유 박스 플랜터는 표토, 피트모스, 펄라이트와 흙을 채우고 토양부식을 방지하는 공기주머니를 만들어 식재기반을 조성하며 도시환경에 적응력 높은 각종 채소, 허브, 초화류 등의 작물들을 식재하여 신선한 작물들을 소출한다. 리버파크 농장에서 소출된 작물들은 근처 리버파크 레스토랑의 식자재로 공급되며 매일 아침 농장에서 수확할 수 있는 작물에 따라 그 날의 레스토랑 메뉴가 결정된다.

이와 같이 리버파크 농장은 레스토랑에 지속적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활용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며 레스토랑 이용객들이 음식 재료 사이에서 그 재료의 요리를 맛보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장소로 부각되면서 우유 박스 정원에 대한 사람들의 흥미와 관심은 점차 높아졌다.

우유 박스 정원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듈형(부품을 자유롭게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형태)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운반이 용이하고 장소와 공간에 크게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실용적이며 공간활용도가 높다. 또한 도시민들의 취미활동 공간과 도심 속 아이들에게 특별한 학습공간을 제공하며 이웃 간의 교류, 경제활동, 공동체의 회복, 장소성, 경관회복 등의 여러 가지 기대효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의 지지와 협력을 통해 발전하고 있다.

우유 박스 정원은 뻣뻣한 도시환경 속에서 공간과 형식, 틀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함과 생산성(작물수확), 지역공동체와의 긴밀한 관계유지, 이웃과의 교류라는 기존 도시농업과의 차별화로 어반가든의 성장 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방향과 비전으로서 이슈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유박스정원, 리버파크 농장 Riverpark Farm ©2011 ore design + technology



이웃간의 교류, 공동체 회복 © 2011 ore design + technology



생활 속 소출 © 2011 ore design + technology



안전한 먹거리 © 2011 ore design + technology

도심 속 자연주의 문화공간 어반가든

글 · 자료 **한선아** Urban Garden 대표 sunnygarden7@naver.com

9년 전 어반가든(http://www.urbangarden.co.kr)을 일주일 밤새가며 기획할 때 참으로 행복했다. 어반가든은 도심 속 자연주의 문화공간이라는 모토로 조경, 도시, 건축가들이 만들어가는 부업모델이며 100세 시대에 조경을 좋아하거나 가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식당의 모델로 오랜 경쟁력이 있을거라는 확신과 정원가구나 소품 판매를 접목한 레스토랑의 필요성, 전원생활을 꿈꾸는 필자와 같은 사람들이 체험하고 즐겨 보는 여가공간이 필요하며 앞으로 대두될 도심재생사업에서 옥상조경이 있는 레스토랑의 활성화를 꿈꾸며 기획하였다.

화단 주변이 쓰레기더미로 쌓여 있던 외진 골목길 빌딩 1층과 공개공지를 연계하여 40평의 홀과 외부주방과 데크와 화단을 정리한 테라스형 밀리샵으로 시작하였고 주변의 기자들과 신문사들의 무상 홍보 덕분에 주변 직장인들의 모임과 회식장소로 첫해부터 인기를 끌었다. 자연주의 CI부터 자연형 먹거리 로컬푸드와 빈티지하면서도 화사한 꽃과 나무들로 가득하였고 환경관련 미디어가 상시 마련되어 있어 도심의 색다른 쉼터가 되어 성공적인 시작이었다.

3년 만에 2008년 확장 오픈한 어반가든 정동본점은 100평 부지에 1층은 빈티지 모던스타일로 꾸미고 2층은 중장년이 좋아할 빈티지 클래식 스타일로 꾸미고 곳곳에 온실 처럼 느껴지는 Terrace Garden과 허브들로 꾸민 옥상정원 Healing Garden, 필자가 가장 좋아하는 텃밭 Kichen Garden, 아이들이 좋아하는 물고기와 수생식물의 변화를 주는 Water Garden, 이태리 요리에 쓰이는 야채들로 이루어진 Chef Garden, 우리 꽃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Rock Garden이 계절마다 자연의 변화를 알려주고 있다.

2008년 KBS 씨티파머 도시농업으로 소개도 되고 2010년 한국방송대상 누들로드에 유일하게 소개된 레스토랑이었으며 수많은 방송, 잡지, 신문과 인터뷰, 영화 장면에 알려졌다. 레스토랑은 분위기와 맛의 조화 없이 레스토랑의 명성은 오래 못 간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대기업 계열의 레스토랑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조경 전문가로서 노력하여 정원의 변화도 주고 오랜 사업의 다양한 경험으로 요리사의 인력수급과 운영의 전문성도 중요한 것 같다. 어반가든은 조경과 정원의 중요성을 공감해주는 고객들과 소통하는 보람이

있다. 주변 대기업과 다국적기업, 관공서가 밀집되어있는 있는 인근 직장인뿐만 아니라 많은 기획 홍보팀들이 다녀갔으며 요즘 들어 주말까지 가족들이 함께와 행복한 여가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정원의 대중화를 실감한다. 재능 나눔 아카데미나 어린이재단 가든 아카데미봉사도 하며 정원문화를 함께 나누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으며 자연을 사랑하고 Handmade Life를 꿈꾸는 이들이 서로 커뮤니티를 이루며 만들어가는 어반가든이 계속되었으면 한다. 열악한 현실 속에서도 함께 의지하고 노력하면 100세 시대에도 미래의 불안감 없이 즐겁게 살아가는 커뮤니티 정원으로서 어반가든은 계속 노력할 것이다. 어느 잡지에 인터뷰 했던 글이 생각난다.

“맛있는 요리나 아름답게 꾸며진 조경은 혼자 즐겨도 나쁘지 않지만 여럿이 함께하면 그 즐거움이 배가되는 것 같아요. 레스토랑 이상의 문화공간을 지향하는 어반가든은 향후 아카데미를 통해 자연친화적 생활문화를 제시, 보급하고 로하스(LOHAS) 생활을 꿈꾸는 어느 도시, 어느 공간이라도 푸른 생활과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는 것이 희망입니다”



1. 어반가든 개조전 모습 ©한선아
2. 힐링가든 ©한선아
3. 키친가든 ©한선아

학생들이 가꾸는 작동하는 생태계 ‘하늘마당’

글 · 자료 **손용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교수 sonyh@snu.ac.kr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하늘마당은 총 746㎡의 옥상정원으로 2010년 서울시동부부른사업소와 환경대학원이 사업비를 모아 조성하였다. 학생과 교직원 뿐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열린공간인 옥상 정원은 관악산과 어우러진 자연을 자랑하며 학내 행사에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학생들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사랑받는 공간이 되고 있다. 학내에서 실시하는 대학원 사진 콘테스트에서도 정원의 아름다운 모습이 잘 담겨지고 당선사진들은 대학원내에 전시되어 있다. 또한 교목과 관목이 각각 10여종, 초본이 약 120여종 식재되어 있어 새와 나비가 날아드는 서식환경으로 하늘마당은 대학원의 쾌적한 휴식처이자 생태관찰공간이다.

옥상정원은 학생들의 손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다. 일반 토양보다 건조하고 척박한 조건이므로 아름다운 정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손이 간다. 옥상은 수분 증발이 잘 이루어 지므로 물주기를 게을리 하지 않고, 수시로 자라나는 잡초를 뽑는 관리가 필요하다.

초화가 절정을 이루는 초여름에서 초가을 사이는 길이감이 길어진 마타리나 부처꽃, 리아트리스, 애기난시아, 등골나물, 범부채 등의 꽃 주변에 지지대를 설치하고 줄로 고정시키는 작업도 한다. 진한 향기를 선사해준 무스카리, 히아신스, 백합 등의 구근류는 캐내어 그늘에 보관한 뒤 이듬해 봄 환경대학원 미화 행사 때 식재한다.

배수가 잘 되고 경량의 토양이긴 하지만 여름철 한때에 비가 많이 오는 기후에 알뿌리가 토양 속에서 썩는 것

을 발견하고 작년부터 이러한 작업도 하고 있다. 정원의 일부 공간은 학생들이 운영하는 텃밭으로 활용하고 있다. 토마토, 고추, 상추, 오이, 호박 등의 채소를 재배하고, 바질, 레몬밤, 페퍼민트, 벨가못, 캐모마일 등의 허브도 재배하고 있다.

2013년 초부터는 학생회를 중심으로 양봉활동을 전개하여 직접 꿀을 채집하기도 하였다. 행동반경이 넓은 꿀벌들은 관악산에서 계절별로 5월 초 아카시아를 시작으로, 밤나무 꿀의 채취가 끝나면 그 외 다양한 꽃에서 꿀을 채취해 벌통을 풍성하게 하였다. 예상보다 많이 수확한 꿀은 학생들이 벌통에서 직접 채취하여 대학원을 알리는 홍보 상품으로 판매하기도 하였다. 또한 꿀벌이 활동하는 정원 공간은 꽃의 수분활동이 보다 활발해져서 이전 보다 꽃들이 더 화사하게 개화하였다.

물웅덩이가 많은 정원에는 흔히 모기도 많다. 옥상정원의 모기를 없애기 위해 한 학생의 아이디어로 정원의 넓은 수반에 송사리를 키우기 시작하였다. 번식이 빠르고 먹이를 많이 먹는 송사리는 모기의 유충인 장구벌레를 많이 제거해 주어 정원의 모기를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

하늘마당은 학생들의 손으로 가꾸어지고 학생들의 참여로 정원의 경관이 해를 더해 진화해간다. 눈으로만 보기에 아름다운 정원에서 이제는 다양한 생명체가 존재하고 생태계가 순환하는 공간이 되었다. 이처럼 하늘마당은 다양한 활동이 생겨나는 장소이고 가드닝을 가까이 경험하는 공간이다.



1. 꽃보다 아름다운 우리 텃밭 ©진세롬
2. 꿀따기(밀개를 밀도를 벗기는 모습) ©환경대학원 학생회
3. 허브 텃밭 ©손용훈
4. 환경대학원 하늘마당 전경 ©노희영

도시 젊은이들의 옥상정원 사용법

글 · 자료 조혜령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조경학 박사과정 hyecho@snu.ac.kr

자연에 대한 많은 갈증과 결핍은 도시 젊은이들에게도 해당사항이다. 지금 그들이 옥상으로 모이고 있다. 젊음의 고민과 낭만을 옥상정원이라는 공간에서 매마른 도시 영혼의 에너지를 충족시키고 있다. 이들의 옥상정원 사용법은 단순히 식물을 가꾸고 경작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그 문화의 매력을 알리고 기획하기도 하며, 이벤트 공간으로서 창의적으로 활용한다. 최근 카페나 레스토랑이 밀집한 서교동~상수동, 이태원~한남동을 중심으로 옥상정원에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커뮤니티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홍대 옥상연구회 청년들은 탐 할러 텃밭을 일구며 직접 기른 채소로 즉석에서 샐러드를 만들어 함께 나누어 먹고 수확한 민트와 바질로 한여름 밤에 차가운 모히토 한잔을 나누며 영화감상을 한다. 그 매력에 20대 중 후반, 4명의 운영진이 이끄는 소모임이 올해 1월 협동조합으로 전환 해 현재 100명이 넘는 회원들과 함께 옥상 텃밭을 꾸리고 있다.

중구에 위치 한 한국유네스코 위원회 옥상정원은 '작은누리'란 이름으로 2003년 유네스코 본부가 추진하는 '생태권 보전 지역'의 개념으로 적용한 도심 생태공원이다. 새와 나비, 벌, 도롱뇽, 지렁이, 쥐며느리, 귀뚜라미 등을 관찰 할 수 있어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의 생태교육의 공간으로 활용 되고 있다. 해바라기 군식을 통해 새들의 먹이를 제공하고, 사초와 초화류 중심의 식재는 곤충들의 은식처를 제공한다. 지렁이를 위한 분변토 박스를 설치하였고, 배추흰나비 번식을 위해 케일을 식재하는 등 유네스코 위원회의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세심한 노력이 엿보인다. 각 부서마다 조성한 13개의 작은누리 텃밭에는 점심식사를 마친 직원들이 커피를 들고 삼삼오오 모여들며 텃밭에 열린 토마토를 맛보는 풍경을 볼 수 있다. 특히 젊은 여직원들은 유기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많아 텃밭에 대한 애착이 더 뜨겁다.

패션디자이너 송자인 씨가 운영하는 한남동 쇼룸의 2층 테라스는 송자인 씨가 직접 일군 정원이 있다. 운이 좋으면 방문한 패션피플들에게 정원에 있는 크랜베리나 토마토 등을 종이컵에 담아 주기도 하며 그녀의 라이프스타일을 공유하려는 모습이 엿보인다.

그 밖에 옥상정원에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며 문화공간으로 주목받는 곳도 있다. 한남동 카페케빈은 남산을 배경으로 마치 캠핑장에 온 듯 캠핑의자와 그릴 랜턴과 화려대,

장작 등으로 꾸며진 정원이다. 예약제로 도심 속에 캠핑을 즐기고자 하는 젊은 층에게 호응이 좋으며 이벤트나 파티장으로 대여도 가능하다. 신세계 본점 본관 위 조각정원은 헨리무어, 알렉산더 칼더 등 고가의 조각들이 은사철 나무의 수벽을 배경으로 전시되어 있다. 이곳은 평소에는 백화점 고객들의 쉼터로 평소에 쓰이고 있지만 패션행사나 브랜드 런칭행사의 장소로도 종종 이용된다. 한달 전 아이돌가수 2NE1과 악세사리 브랜드 크롬하츠와의 콜라보레이션 파티가 이곳에서 열렸다. 종로구 관철동에 위치한 마이크임팩트 스퀘어는 '업사이클링 가든 upcycling garden'을 컨셉트로 플라스틱 박스나 페기름통에 식물을 심거나 정원용 가구를 만들어 꾸며졌다. 매주 목요일 밤이면 옥상 잔디밭은 무료 영화를 상영하거나, 토크콘서트, 소규모 밴드 공연장으로서 젊은이들에게 충분한 로맨스와 감성 공급의 장소로 제공된다.



1. 2013년 6월 19일 옥상정원에서 '21세기 청춘을 움직이는 힘'이란 주제로 토크 콘서트 ©micimpact square.
2. 옥상연구회 회원들의 소모임 ©www.facebook.com/generaldoctor
3. 신세계 본점위 조각정원에서의 런칭파티 ©조혜령

여성환경연대 도시공동체 텃밭 : 농사, 도시재생과 문화를 꿈꾸다

글 · 자료 전재현 삼성에버랜드(주) 부소장 jh66.cheon@samsung.com

여성환경연대는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도시의 생태적 삶을 위한 대안으로 생태 안내자 양성 활동, 도시옥상 비오톱 공간 조성활동 등을 해왔으며, 2007년부터 30여개의 학교에 걸쳐 추진해 온 학교텃밭운동을 시작으로, 도시공간 재생과 청년들에 주목하면서 2011년 '문래도시텃밭', 2012년 '홍대텃밭 다리', 2013년 '대륙텃밭' 등 자급적 삶의 기술로서의 농사를 배우고 나누는 도시공동체 텃밭운동을 성공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2011년 5월 개장한 '문래도시텃밭'은 여성환경연대의 첫 번째 도시공동체 텃밭으로서, 오래된 철공단지가 자리잡고 있는 문래3가 54-41 영동스텐레스 건물의 옥상을 각종 공사자재, 폐기물 등을 정리하고 녹화하여 마을 주민이 함께 가꾸는 텃밭으로 조성한 프로젝트이다. 2011 생활녹화의 달인 경진대회, 서울시장상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하였는데, 현재는 가족단위 참가자와 지역예술 활동가들로 운영조직이 결성되어 이들을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다. 텃밭공간을 매개로 청년예술가들과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지며, 콘서트, 뮤직비디오촬영, 연극공연 등 소비주의를 넘어 생산하고 배우는 새로운 청년문화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4월에 개최한 '시농제' 외에 '옥상농부학교', '어린이비화교실', '농사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홍대텃밭 다리'는 2012년 8월 홍대역 부근 가톨릭청년회관 옥상에 개장한 텃밭으로서, 이곳은 공동텃밭(농사학교 수강하는 지역청년들이 팀으로 나뉘어 경작)과 멘토 텃밭(로컬채소브랜드 만들기과 도시반농실습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포지역 주민과 지역의 청년 및 아티스트들이 홍대역 도심 한가운데서 함께 만들어 가는 녹색 공유공간이다. 인사사고로 폐쇄 되었던 도심 속 빌딩공간을 지역청년들이 함께 농사짓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의미 있는 변신을 시켰으며, 주요 활동으로는 작년에 이어서 '봄, 가을농부학교', '텃밭다리 사진전', '텃밭 점심 프로그램' 등을 주최하였다. 최근에는 멘토팀이 주축이 되어 진행중인 로컬 채소브랜드 'MIM(Made in Mapo)'가 도시농사를 통해 키운 채소를 활용한 가공품을 생산, 판매하는 일을 통해 도시 전업농, 반농으로서의 자립적 삶의 가능성을 실현함으로써 주목을 받고 있다.

올 봄에는 홍대텃밭 다리에서 보여준 지역 청년들의 농사에 대한 관심, 열기를 담아내기 위해서 합정동에 위치한 카페 무대륙 옥상에 '대륙텃밭'이 개장되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텃밭운동들의 교류의 장은 작물 재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시형 장터인 '마르쉐@'로 확장되고 있다. '마르쉐@'은 도시농부와 요리사, 예술작가가 함께 만드는 도시형 음식장터로서, 2012년 10월 혜화동 마로니에 공원에서 1회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10여차례의 행사를 열었다. '여성환경연대'와 '마르쉐친구들', '패션지마리플레르', '아르코미술관'의 공동 주최로 열리는 '마르쉐@'에서 농부들은 소비자에게 농산물을 건강하게 키우는 과정을 소개하고, 요리사들은 지역 농민들의 유기 농산물을 확보해 건강한 맛으로 교감한다. '마르쉐@'는 시장이라는 형태를 통해 도시농사와 로컬푸드를 중심으로 한 즐거

운 식문화를 제안하고 도시공간의 새로운 이용형태를 통해 공유적 가치를 만들어 오고 있다. 올해로 두 번째 여름을 보내는 문래도시텃밭과 후속 도시공동체 텃밭들은 커뮤니티가든이 가진 다양한 가능성을 여전히 실험하고 있는 중이다. 이 텃밭들은 도시 안에서 아주 작은 녹지이지만 고층아파트와 빌딩숲 속에서 낯설고도 친밀한 느낌을 주는 공간으로, 도시텃밭은 이곳에서 이웃이 되고 지역공동체의 일원이 된 사람들의 자발적 참여 속에 계속 진화해 갈 것이다.

자료제공: 이보은 _ 여성환경연대



1. 문래도시텃밭(출처: 여성환경연대)
2. 홍대텃밭 다리(출처: 여성환경연대)
3. 마르쉐@혜화 (출처: 여성환경연대)

독일 베를린의 모바일 가든

Prinzessinnengärten 글·자료 이형숙 가천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soolee@gachon.ac.kr

독일 베를린의 도시농장 Prinzessinnengärten(Princess Garden)은 크로이츠베르크 지역 모리츠플라츠에서 시작된 이동식 유기농 정원이다. 2009년 영화제작자인 로버트 쇼와 사진작가 마르코 크라우센이 조직한 비영리단체 'Nomadisch Grün'가, 과거 60년 넘게 방치되었던 6,000㎡ 규모의 부지를 도시농업을 위한 텃밭정원으로 조성하면서 시작되었다. 기존 부지에 있었던 쓰레기들을 정리하고, 채소 및 허브 화단을 비롯한 다양한 시설들을 설치하는 정원 조성과정에 아이들, 학생, 지역주민들,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가 이루어졌다. 대부분이 자원봉사자에 의해 운영되는 이곳은 사람들이 야채와 과일을 직접 기르고 그 과정을 알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공동 학습(common learning)'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정원의 가장 큰 특징은 모바일 즉 이동식 정원이란 점이다. '유목농업(Nomadic Green)'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Nomadisch Grün 단체는, 베를린 시로부터 토지를 1년 단위로 임대했기 때문에 이동할 수 있는 정원의 형태로 시작하였다. 정원 내 건축물은 컨테이너로 구성되고 식물은 재활용 플라스틱통, 봉지, 종이팩 등을 이용한 화분에 심는다. 이러한 이동 시스템을 통해 주차장, 옥상, 포장도로 등의 유휴공간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정원으로 변형시키고, 정원은 도시의 변화들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원의 채소들은 화학비료나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않는 유기농법으로 경작되는데 토양과 종자 역시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을 이용한다. 또한 귀한 토종의 품종들과 농작물의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정원에서 길러진 채소들은 정원 안에 위치한 정원 카페나 정원 레스토랑에서 사용한다. 이는 정원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운영하기 위한 수익창출의 목적도 있지만, 퇴비 만들기, 씨뿌리기, 가꾸기, 요리하기, 소비하기까지의 먹거리의 일련과정을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Prinzessinnengärten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만의 화단을 소유하지 않지만, 가입을 하면 이러한 녹색의 공간을 함께 만들기 위해 활동할 수 있다. 활동의 범위는 파종·심기·수확 과정에서의 새로운 농법들의 개발, 채소들의 가공 및 보존, 양봉, 지렁이 퇴비의 사용에 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활동을 해나가는 주체들은 비록 비전문가들이지만, 함께 시험하고 경험과 지식들을 교환해 나가면서 농업기술 뿐만이 아닌 지속가능한 생활을 경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 독일 베를린의 모바일 가든 (출처: 공식홈페이지 <http://prinzessinnengarten.net>)
2. Nomadisch Grün이 출간한 책자 "Princess Garden. Unlike gardening in the city"(Dumont 2012) (출처: 공식홈페이지 <http://prinzessinnengarten.net>)

BOOKS & REPORTS

My Green City

: Back to Nature With Attitude and Sty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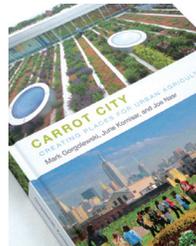


도시, 디지털, 세련됨 그리고 속도와 소비에 대한 동경이 최근의 우리를 지배해왔다. 이에 반하여 오늘날 우리 도시에 자연을 다시 가져오고 지속가능하며 더 책임감 있게 우리의 환경을 다루고자 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전환점을 디자이너, 예술가, 건축가, 활동가 그리고 열정적인 일반인들의 새롭고 창의적인 삶의 방식을 함께 축하하고자 한다. 책은 도시 농업 운동과 우리의 도시를 전체적으로 바꾸는 건축

적 비전으로부터 우리의 거리와 가정을 보다 푸르게 만들 가구와 일용품들에 이르기까지 전세계의 뛰어난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게릴라 정원사들은 도시의 흉물들을 꽃으로 꾸민다. 글램핑 리조트들은 아름다운 경관 속에서 친환경적이면서도 멋진 휴가를 선사해준다. 디자이너들은 기능적이거나 미적인 방식으로 식물을 활용하는 형태의 예술, 상품, 프로젝트를 만들어낸다. "나의 푸른 도시"는 보다 책임감 있고 환경친화적인 삶을 꿈꾸는 모든 이들을 위한 사회적이며 흥미진진한 책이다. 이 책은 우리가 떳떳하지 못한 마음으로 살아가거나 절망에 빠지지 않게 우리의 지구를 돌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여기에 나오는 다양한 시각적 예시들과 심도 있는 글들은 우리가 도시적 미래를 푸르고 창의적이고 생기발랄하고 건설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Carrot City

: Creating Places for Urban Agriculture



캐롯 시티는 디자인을 통해 우리 도시에 다시 농업을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식재료를 생산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들을 소개한다. 이 아이디어들 중에는 아직 개념적인 안들도 있으며 실현된 프로젝트들도 있다. 이 책은 건축, 조경, 도시 설계가 지역적 자원에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도시 내에서 식재료를 기르고자 하는 요구와 필요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탐색하였다. 이 책에 소개된 40여 개의 프로젝트들은 도시 농업이 어떻게 주민들에게 신선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즉각적으로 제공해주며 지역 공동체를 형성해주는 시각적으로 놀라우며 미적으로 흥미로운 대안들을 이끌어내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저자들은 생산을 디자인의 근본적인 요구 조건이라고 보는 도시 계획과 건축적 접근 방식이 텃밭, 고가도로 밑의 온실, 소모적인 잔디를 대체하는 생산적 뜰, 고밀도 도시 블록에 녹지를 선사하는 녹벽, 학생과 주민들이 함께 가꾸고 수확할 수 있는 생산적 옥상 정원을 만들어내는 예들을 제시한다.

김영민(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NEWS

정리 **신현돈** 서안알앤디디자인(주) 대표이사 shinhyeondon@korea.com

버려진 창고, 지역 커뮤니티의 장소가 되다!
샌프란시스코의 중앙시장 근처에는 크고 작은 범죄들로 인해 오랫동안 버려진 창고가 있다. 이를 눈여겨보았던 시민활동가그룹 [freespace]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이 창고를 한 달 동안 임대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6월 한 달 동안 임대된 창고는 [freespace]의 커뮤니티센터로 활용되었다.

지역 아티스트들의 도움을 받아 외관을 채색하는 작업부터 진행되었으며 건물 내부의 책상이나, 칠판 등은 지역주민의 기부로 마련되었다. 자갈이 깔렸던 창고의 주차장에서는 가드닝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강좌가 열렸고 텃 밭 공터였던 주차장이 아이들의 체험학습 장소가 되었다. 센터 내부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강좌들뿐만 아니라 놀이기구도 있어 놀이나 강좌를 통해서 아이들은 협동심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freespace]는 어반가드닝, 요가, 꽃꽂이, 그림 등의 강좌와 지역주민이 함께 모일 수 있는 텃밭, 맨스파티, 연주회, 프리마켓 등의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더불어, 인근의 노숙자들을 위한 학습 센터와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 자전거 대여 프로젝트도 함께 운영하였다. 지역주민으로 자원 봉사팀을 구성하고 직접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는 등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꾸준히 이어지는 커뮤니티 활성화를 밑바탕이 되고 있다.

6월 한 달 동안 진행되었던 프로젝트는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7월 창고 임대를 위한 모금활동을 시작했고 7월에도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할 수 있었다.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freespace]는 지역주민이 모여서 이야

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작은 노력이 결국엔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커뮤니티 활동을 만들어냈다. “하나의 공간, 한달의 시간, 무제한의 가능성 - [1] space [1] month [∞] possibilities”라는 [freespace]의 목표는 샌프란시스코 중앙시장의 커뮤니티센터를 통해 조금씩 실현되는 중이다.

서울시, 꽃·나무 심는 예코스쿨 20곳 지원 - 버려진 옥상공간 활용한 녹화사업

서울시내 20개 학교가 꽃과 나무를 심는 예코스쿨로 변신한다.

서울시는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20개 학교 옥상에 꽃과 나무를 심는 예코스쿨 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버려진 옥상공간을 활용한 예코스쿨 조성사업을 위해 시는 지난 5월 서울 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 학교 20곳을 선정했다.

시가 옥상녹화 기반시설을 조성해주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식재와 관리를 맡는다.

한편, 시는 산림조합중앙회의 후원을 받아 지난 4월부터 380개 학교에 꽃 4만4000여본과 나무 5만3000여그루를 지원했다. 서울시는 "예코스쿨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스스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꿀 수 있는 자연체험학습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버려진 페트병·폐현수막, 꽃화분으로 재탄생 - 안양시 호계2동 주민센터, 폐기물 재활용 '성과'

안양시 호계2동 주민센터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폐기물을 이용한 재활용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7일 호계2동 주민센터 등에 따르면 폐기물 재활용 사업은 환경오염의 주범인 버려진 페트병과 폐현수막을 수거해 꽃화분으로 재생산하는 친환경 사업으로 실용성을 갖추고 환경오염도 방지하는 '일석이조'의 효과



를 거두고 있다. 호계2동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은 각 가정에서 버려진 페트병을 수집하고 불법으로 게시된 현수막을 수거해 간단한 수선과정을 거쳐 형형색색의 꽃 문양이 가미된 꽃화분으로 재탄생시키고 있다. 이렇게 재탄생된 화분에는 공기정화 효과가 탁월한 다육식물인 '칼라코에' 등 꽃 묘목을 식재해 주민들에게 되돌려 주고 있다. 조정환 동장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사업이 큰 효과를 보고 있다"며 "가정의 달을 맞아 경료호친 상상을 구취하고자 노인들에게 화분을 전달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맨체스터(Manchester), 다양한 도시 정원을 전시하는 어반 가든 페스티벌(Manchester urban garden festival) 개최

맨체스터의 도시 가드닝 축제인 디그 더 시티(Dig the City)가 오는 8월 3일에서 11일 까지 개최된다. 축제는 도시를 관통하는 중심가인 King Street, St. Ann's Square, Exchange Square and Cathedral Yard, New cathedral Street를 따라 5개의 중심정원이 선형으로 전시가 된다.



내셔널 트러스트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이 행사는 방문객들에게 도시 중심부가 경이로운 자연의 모습으로 변화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설계에는 타톤 골드 어워드(Tatton gold award)를 수상한 데이비스 버건 디자인(Davis Vaughan Design)이 함께 참여했다.

서울시, "최고의 시민가드너를 찾아라"

서울시가 지난 5월 12일 서울광장에서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가족화분 만들기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가족화분 만들기 경진대회'는 가족과 함께 도심 속에서 가드닝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체험, 전시,



공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번 대회는 가족이 함께 참여해 개인의 개성과 아이디어로 다양한 꽃을 선택, 배합해서 직접 심어보는 체험형 가드닝대회로 최고의 시민가드너 20팀을 뽑아 시상했다.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시민참여 도시녹화운동을 위해 원예용품 등 녹화재료를 지원하고 수상작품은 팀명을 작은 팻말에 담아 서울광장 또는 신청사에 전시했다.

문화예술공연과 함께 가드닝 관련 도서 및 원예(식물) 전시, 꽃을 소재로 한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오해영 푸른도시국장은 "이 행사를 통해 친밀한 가족관계 증진 및 건강하고 활기찬 가족공동체 형성 계기가 되고 시민이 생활공간 곳곳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자발적 녹색문화가 일상적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자 레터

이번 호의 주제는 도시정원가꾸기(Urban Gardening)이다. 2013년은 정원문화가 우리사회의 화두로 등장한 한 해였다. 순천만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면서 정원가꾸기에 대한 잠재적 욕망이 확장되었다. 옥상 등의 생활공간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하여 텃밭을 일구는 일은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도시 정원가꾸기(Urban Gardening)'라고 부르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생각한다. 국내외의 도시정원가꾸기가 여러 사례는 매우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도 도시정원가꾸기가 확산되어 우리 삶의 방식이 변화하기를 희망한다.

조경정보지 편집위원장 조경진

(사)한국조경학회 발간 정보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1007호

Tel. 02-565-2055 Fax. 02-565-2056

e-mail. kila96@chol.com

Homepage. www.kila.or.kr

발행 및 편집위원 정보

발행일 | 2013년 11월 30일

발행처 | (사)한국조경학회(김한배 회장, 서울시립대)

편집위원장 | 조경진(서울대 환경대학원)

책임편집위원

손용훈(서울대 환경대학원)

편집위원

김병채(채움조경기술사사무소), 김영민(서울시립대),

신현돈(서안알앤디디자인(주)),

윤상준((사)한국전통조경학회), 이형숙(가천대)

전재현(삼성에버랜드(주)), 전진형(고려대)

간사

유은자((사)한국조경학회)

후원사

Mizu ECOROCK
미주강화주식회사

CHUNGWOO
FUNSTATION

GSLA 푸른공간